

김영규 “중소 지원금 두배 늘려 1조… 임기 내 상장 완료”

IBK증권 김영규 대표 취임 간담회
펀드 설립 주도해 모험자본 공급
중소벤처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

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이 2018년 전략과제로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제시했다.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액을 1조원까지 확대해 중기특화증권사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중기특화증권사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또 정책자금과 민간자본의 매칭을 통한 펀드 설립을 주도해 모험자본 공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앞서 IBK증권은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11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이사(가운데)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김석준 수석부사장 (오른쪽)이영준 부사장 /IBK투자증권

중소기업특화 벤처캐피털 펀드(215억원)와 한국성장금융·SK행복나눔재단·KEB하나은행이 출자한 사회적기업펀드(110억원)의 결성을 마쳤으며 올 상반기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IBK증권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코스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IBK증권은 코넥스에 6개사, 코스닥 코스피에 각각 1개사를 상장시켰다. 올해는 코스닥 코스피에 6건 이상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부터 4년 연속 사상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IBK투자증권은 올해 새

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유효고객수 증대 ▲차별화된 중소기업 서비스 ▲직원 사기 진작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은행과 증권사의 시너지를 결합한 복합점포 확대와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영업력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지점에 기업금융 전문인력을 배치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점 기능을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기업금융업무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추가적인 영업기회는 현장에 있으며, 이는 제2의 도약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 십 년 현장 경험을 가진 영업맨으로서 모든 문제의 돌파구는 현장에 있다는 게 지론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 사장은 1979년 기업은행에 입행한 이후 2015년까지 35년을 인천 지역에서 활동해온 영업통으로 불린다.

아울러 초대형 투자은행(IB) 시대에 맞춰 고부가가치 사업부문의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투자은행(IB), 자본시장(CM), 프라이빗에쿼티

(PE), 인수합병(M&A) 부문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사장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취업규칙’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최근 취업규칙 폐기 결정에 대해 “좋은 인재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저성과자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 IBK투자증권 상장과 관련해 “상장의 모든 조건은 준비가 다 돼 있다”면서도 “현재 주주들의 손해가 없을 만큼 기업순자산가치(PBR)를 높인 후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의 임기 안에는 상장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최근 4년간 실적이 좋았던 만큼 주주환원정책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BK투자증권은 비은행부문 수익 비중을 20% 늘린다는 IBK기업은행의 전략 목표에 맞추어 상반기 중 시너지팀을 신설하고 복합점포를 확대한다. 그룹 내 시너지 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손연지 기자 sonumji301@metrosooel.co.kr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인정한 독보적 기술”

| IPO 기자간담회 |
씨엔지하이테크
반도체 투자 확대에 전망 밝아
공모가밴드 1만6000원~2만원



11일 여의도에서 열린 IPO기자간담회에서 홍사문 씨엔지하이테크 대표이사가 기업설명회 하고 있다. /씨엔지하이테크

국내 최초 화학약품 초정밀 혼합 공급 장치 개발기업인 ‘씨엔지하이테크’가 이달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씨엔지하이테크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16~17일 청약의 거처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밝혔다.

씨엔지하이테크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초정밀 유량 제어 기술, 정밀 농도 관리 기술, 실시간 혼합 기술 등 핵심 부문에 걸친 31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또 3차원 설계, 소프트웨어(SW) 기술 등 시스템 요소 부문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새로운 방식의 화학약품 혼합 중앙 공급 장치를 업계 최초로 개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씨엔지하이테크는 국내외 유수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39%가 삼성전자에서 발생했고, 나가세 엔지니어링서비스(33%), SK하이닉스(8%) 순으로 매출비중이 컸다.

씨엔지하이테크의 2017년 3분기(누적) 매출액은 612억원, 영업이익은 80억원을 달성했다. 3분기 실적만으로도 2016년 연간 매출액(443억원)과 영업이익(65억원)을 가뭄히 뛰어넘었다.

향후 전 세계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씨엔지하이테크의 전망도 밝다. 공정 미세화 및 생산 능력(CAPA) 향상에 따른 화학약품 사용 증가로 대용량 장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대서다.

씨엔지하이테크의 공모가 밴드는 1만6000원~2만원, 공모주식수는 128만 8000주다. 공모가 최상단 시 공모규모는 258억원으로 이는 신규사업투자에 사용될 계획이다. 대표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가 맡았다.

/손연지 기자

(종합지수를 포함한 주요 대표지수의 연도별 수익률 비교)

연도	KRX 300	KOSPI	KOSPI 200	KODAQ	KODAQ150
2013	0.3%	0.7%	0.1%	0.7%	-2.8%
2014	-6.8%	-4.8%	-7.6%	8.6%	4.5%
2015	1.3%	2.4%	-1.5%	25.7%	22.5%
2016	5.8%	3.3%	8.2%	-7.5%	-14.5%
2017	24.8%	20.2%	23.2%	25.4%	49.6%
수익률 평균	5.1%	4.4%	4.5%	10.6%	11.9%

새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KRX300 개발

내달 5일 새통합지수 공식 발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이끌기 위해 코스닥 비중을 높인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KRX 300’이 나온다.

한국거래소(KRX)는 기존 통합지수의 단점을 보완한 KRX300 지수를 개발

해 내부 테스트 중이라며 2월 5일부터 새 통합지수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로는 ‘K TOP30’(코스피 29종목, 코스닥 1종목)과 ‘KRX100’(코스피 91종목, 코스닥 9종목)이 있는데 코스닥 편입 종목이 적고 국내 증시 전체를 대표하기에도 미흡하다

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 개발된 KRX300은 코스피 232종목과 코스닥 68종목으로 구성됐다. 이들 종목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2.9%와 41.7%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6%로 집계됐다.

새 지수 내에서 코스닥의 시총 비중은 6.5%다.

구성 종목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 및 유동성을 갖춘 기업 중 재무, 유동성 등 요건을 따져 에너지, 헬스케어, 유틸리티 등 9개 산업군별로 평가해 선정했다.

새 지수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연평균 5.1%로 코스피200(4.5%)보다는 다소 높고 코스닥150(11.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편 거래소는 새 통합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을 도입하고 통합지수의 서비스도 개발할 방침이다. /김민호 기자 kmh@

3월까지 광역시 5600여 가구 분양

지난해 7116가구비 21.2% 감소
부산 크게 늘고 광주·울산 줄어

올 3월까지 부산 등 지방광역시에서 5607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7116가구 대비 21.2% 감소한 수치로 물량 감소가 눈에 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205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156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광주, 울산 등은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전매제한 이후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이 늘자 건설사들도 아파트 공급을 주저하는 분위기다.

현재 이들 광역시는 강화된 전매제한을 적용 받고 있다. 부산은 지난 11월 말 기준 미분양집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9월 720가구, 10월 1473가구, 11월 1593가구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전도 9월 945가구에서 11월에는 1062가구로 늘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재 지방광역시는 전매제한 강화를 비롯해 입주증가 등으로 수요자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분위기”라며 “전매금지가 시행중

인 부산은 관심 물량에 청약 풀림이 심해 지겠지만 비인기 지역에선 미분양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지방5개 광역시의 주요 분양단지로는 아이에스동서가 부산 영도구 봉래동4가 봉래1구역을 재개발 해 49~102㎡, 1216가구 중 6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림산업은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5지구 2블록에 59~114㎡, 2120가구의 ‘e편한세상’을 짓는다. 이중 1358가구가 일반분양이다. 부산지하철 3호선 만덕역 역세권이다. 금정산자락에 위치해 있다. 대우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 587-1번지 옛 해운대스편지를 헐고 548가구의 주상복합을 짓는다.

반도건설은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A-4블록에 60~85㎡, 527가구를 공급한다. 대구국가산업단에는 통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기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삼호는 대전 대덕구 범동 범동주공1구역을 재건축 해 59~84㎡, 1503가구의 e편한세상을 짓는다. 이중 420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대림산업 삼호 대구 중구에 ‘e편한세상 남산’ 분양

아파트 348가구·오피스텔 72실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가 대구의 원도심인 중구에서 새해 첫 분양을 실시한다. 삼호는 이달 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50-2번지 일대 남산재마루지구를 재건축한 ‘e편한세상 남산’ 59·84㎡ 아파트 348가구와 44㎡ 오피스텔 72실을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06 가구, 84㎡ 142 가구다. 이중 59㎡ 180가구, 84㎡ 103가구와 오피스텔 72실이 일반에 분양된다.

대구 중구는 대구광역시의 금융, 의료, 문화, 유통산업 등이 자리잡은 핵심 거점이다. e편한세상 남산은 도심의 인프라와 확군을 갖춘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대구 중구는 1980년대까지는 대구의 중심지였지만 수성구, 달서구 등 신도심 개발의 여파로 인한 인구 유출과 노후화



가 맞물려 있다.

e편한세상 남산의 주변으로 4곳의 재개발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어 대구 남산지구 일대가 향후 원도심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산동은 지하철 2, 3호선 환승역인 신남역과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 등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다.

/이규성 기자